

[특허동향]

.....

2003년 화장품산업 분야 특허동향

나 달 수
(주) 태평양

1. 서론

2003년 화장품산업분야 특허동향을 위한 특허조사 범위는 2004년 11월 30일까지 공개된 특허 중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되었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화장품 특허출원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을 이용하여 화장품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 특허분류 코드인 IPC에서 화장품 분야에 해당되는 A61K 7(화장품 또는 유사화장품제제)을 주 대상으로 하여 국내 특허를 조사했다. 이렇게 조사된 특허출원 432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구강 분야의 특허출원과 화장품 분야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허출원을 제외한 387건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하였다.

2. 출원인별 국내 특허출원 동향

2003년 화장품산업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내국인이 194건으로서 50.1%를 차지하고 외국인이 193건으로서 49.9%를 차지하여 내외국인 간의 특허출원은 비슷한 수준이었다(표 1). 이는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이 국내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 내외국인 국내 특허출원 현황 1)

구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특허출원수	194	193	387
비율	50.1	49.9	100.0

외국인 출원인에 대한 국가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그림 1), 국내에 1건 이상 특허출원한 국가는

1) 내국인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는 특허공개제도로 인해서 2004년 11월 30일 공개된 2003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특허출원된 내용이므로 2003년에 출원된 모든 특허출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특허출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판단해 보면, 향후 2003년 특허출원건이 모두 공개되는 시점인 2005년 6월 이후에 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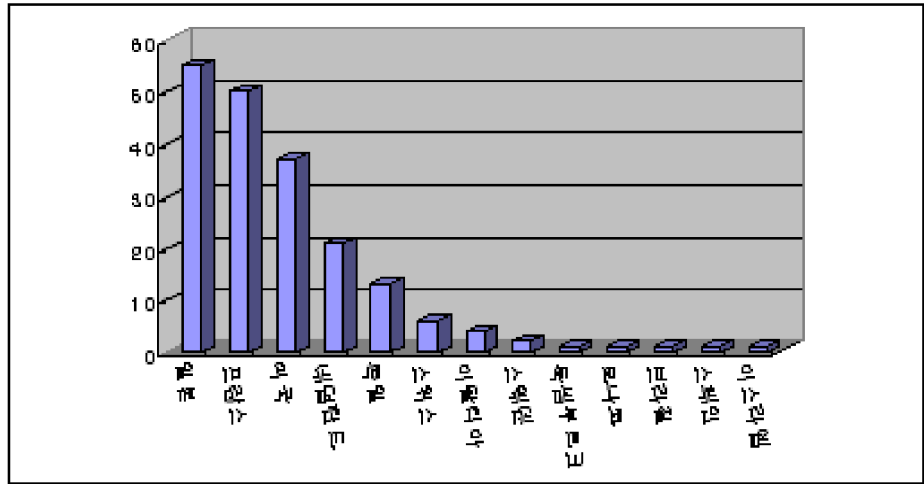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의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표 2 내외국인의 연구주체별 특허출원 현황

연구주체	내국인		외국인		전체	
	특허출원수	비율(%)	특허출원수	비율(%)	합계	비율(%)
기업	108	56	191	99	302	78
민간	74	38	2	1	76	20
대학	7	4	0	0	5	1
공공기관	4	2	0	0	4	1
합계	194	100	193	100.0	387	100

일본, 프랑스 등 13개국이었으며, 그 중 일본이 55건으로서 외국인 전체 대비 28.5%를 차지하였고 프랑스 50건, 미국 37건, 네덜란드 21건, 독일 1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출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내외국인 연구주체 중에서 기업이 302건으로서 전체 대비 78%를 차지하였고 민간이 76건으로서 20%, 대학이 5건으로서 1%, 공공기관이 4건으로서 1%를 차지하여 기업 위주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이를 내외국인으로 각각 분리해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에는 기업

의 특허출원이 108건으로서 전체 대비 56%를 차지하였고 민간 38%, 대학 4%, 공공기관 2%으로 구성된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업의 특허출원이 191건으로서 전체 대비 99%를 차지하였고 민간의 특허출원은 2건으로서 전체 대비 1%를 차지하였다. 이는 외국인의 경우에 내국인에 비해서 기업 위주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내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이 아닌 민간 부문의 특허출원이 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2), 로레알이 38건으로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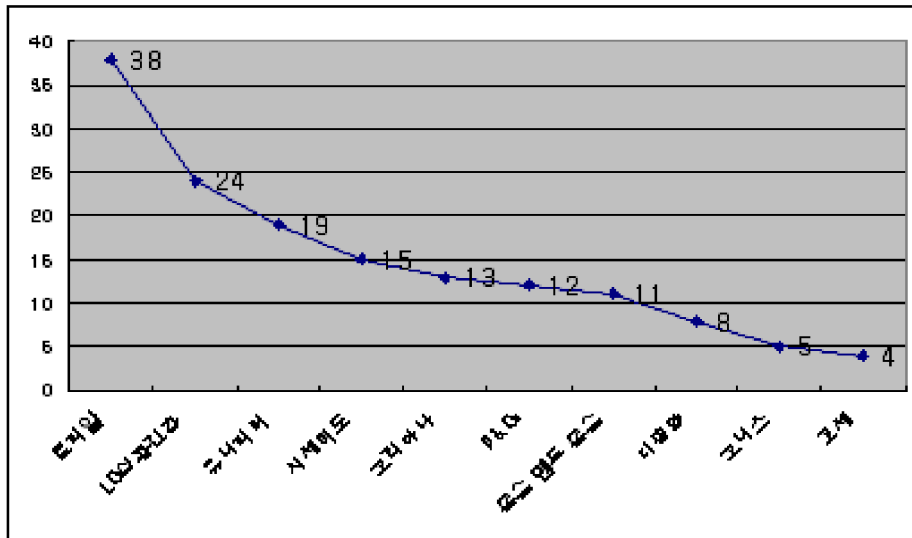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현황

였고, LG생활건강이 24건으로서 내국인 중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였다. 그 뒤를 유니레버, 시세이도, 코리아나의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상위 5개 출원인의 특허출원이 36%를 차지하였으며, 1건이상 특허출원한 기업수는 122개였다.

3. 기술분류별 특허출원 동향

화장품 분야는 IPC기술분류를 기준으로 기초화장품, 모발화장품, 메이크업화장품, 방향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초화장품이 269건으로서 전체 대비 69.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표 3). 또한 모발화장품이 75건으로서 19.4%, 메이크업화장품이 38건으로서 9.8%, 방향화장품이 5건으로서 1.3%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화장품 산업분야의 특허출원은 기초화장품 위주의 기술 개발이 주를 이루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기술 분류별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술분류별 국내 특허출원 현황

기술분류	특허출원수	비율
기초화장품	269	69.5
모발화장품	75	19.4
메이크업화장품	38	9.8
방향화장품	5	1.3
합계	387	100.0

1) 기초화장품

기초화장품의 경우에는 조성물이 58건으로서 전체 대비 18%를 차지하였고(표 4) 그 뒤를 항노화(주름개선, 콜라겐 생합성 촉진, 피부탄력유지, 항엘라스타제 등 포함)는 51건으로서 전체 대비 17%, 세정은 36건으로서 전체 대비 12%, 미백은 35건으로서 전체 대비 11%, 보습(피부건조 개선 포함)은 22건으로서 7%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에는 각질제거, 마사지, 면역, 무좀, 발한억제, 슬리밍, 신진대사 촉진, 아토피, 자극완화, 피부진정, 피지조절, 향균, 향산화, 향스트레스 등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다.

표 4 기초화장품의 용도별 특허출원 현황

용도	특허출원수
조성물 ¹⁾	58
항노화	51
세정	36
미백	35
보습	22
팩(시트)	16
자외선차단	14
항산화	10
목욕	9
여드름	8
기타	48
합계	307 ¹⁾

2) 메이크업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분야에서는 마스크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분야별로 보면 마스크라가 12건으로서 전체 대비 3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조성물이 9건으로 전체 대비 24%, 분체가 8건으로 전체 대비 21%으로 이루어졌다.

표 5 메이크업화장품의 용도별 특허출원 현황

용도	특허출원수
마스크라	12
조성물	9
분체	8
네일	3
립스틱	3
문신	1
클렌징	1
피지조절	1
합계	38

3) 모발화장품

모발화장품의 경우에는 염모(코팅, 탈색, 표백 등 포함) 용도가 27건으로서 전체 대비 3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컨디셔닝(모발의 보습 및 광택 부여, 샴푸 등 포함)이 18건으로서 전체 대비 24%, 육모(육모, 양모, 탈모방지 등 포함)가 14건으로서 전체 대비 19%였으며 그 외 스타일링(정발, 웨이브 등 포함)이 7건, 퍼머넌트 5건의 순이었다. 특히 모발화장품 분야에서는 염모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6).

표 6 모발화장품의 용도별 특허출원 현황

용도	특허출원수
염모	27
컨디셔닝	18
육모	14
스타일링	7
퍼머넌트	5
소취	2
모성장억제	1
제모	1
합계	75

4) 방향화장품

방향화장품은 아로마(항스트레스 포함)에 관한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적었다.

표 7 방향화장품의 용도별 특허출원 현황

용도	특허출원수
아로마	3
생체조절	1
조성물	1
합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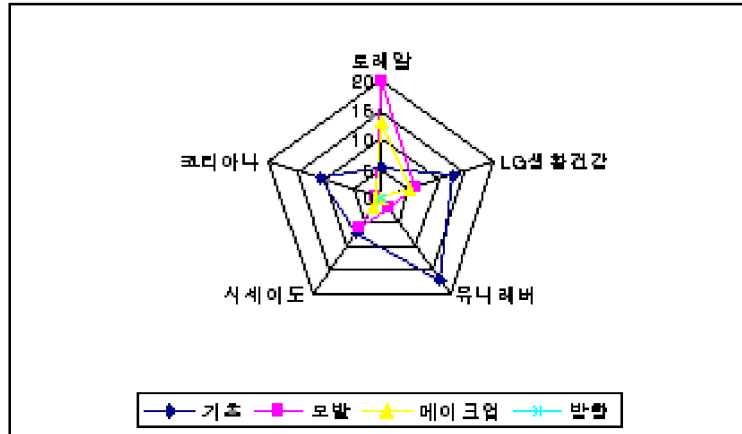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출원인별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현황

특히 방향화장품 분야에서는 아로마테라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7).

5) 주요 출원인별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주요 출원인의 기술분야별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로레알의 경우에는 기초화장품이 5건 특허출원된 것에 비해서 모발 화장품 20건, 메이크업 화장품이 13건 특허출원되어 기술분류 전체 특허출원 동향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로레알이 이 분야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G생활건강, 유니레버, 시세이도, 코리야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향처럼 모두 기초화장품의 특허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3).

용도에 있어서도 단일 용도보다는 2가지 이상의 복합 용도를 요구하는 특허출원도 많이 증가했다. 성분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의 경우에는 생약재 추출물에 대한 특허출원 비율이 높았으며,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화합물에 대한 특허출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결론

화장품산업분야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조성물 특허출원의 비율이 높지만 점차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와 함께 미백, 항노화, 자외선차단 등 특정 용도에 관한 특허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